



문희상 국회 의장, 5부요인 및 당대표 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요인 및 각당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전당대회 불출마 “대통령 부담 스스로 결자해지”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한다.

김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7월1일 저는 ‘개각이 있을 때까지 오직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17일 현재 개각이 아직 단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저는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직에



행안부 출입기자단에 거취 밝혀 “대통령에 폐 끼치고 있는 상황” “개각과 연동…송구스러운 일”

머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한 시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이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간절한 애당심을 늘 간직하겠다”며 “국민들은 우리 당에 걸여주는 기대가 너무나 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지도부가 구성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간에 협치가 활짝 꽃 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이유도 밝혔다.

그는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버렸기 때문이다. 개각과 임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서는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로 인해 혼선과 역측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온 저의 탓이 적지 않다”며 “모름지기 정치인은 나아감과 불리함이 분명해야 한다고 배웠다. 부끄러울 따름이다.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다. 이에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추진

김병준, 친노 의원 비판에 “盧정신 왜곡”

17일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진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자신을 향해 일부 친노 의원들이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참여정부에 속해 있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당과) 대척점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좋은 경쟁관계이자 보완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윽고 향후 혁신비대위 체제와 관련해선 “당장 혁신비대위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선거 기간을 생각하면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다만 “당의 아주 많은 분야를 많이 바꿀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준비형 비대위가 아닌 해산작업을 포함한 전권형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사실상 암시한 셈이다.

한편 이날 노무현 키즈라고 불리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김 교수를 겨냥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쪽 일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인에 올리지 말라”고 공격했다.

한국당, 김병준에 공천권 ‘칼자루’ 줄까

전국위 열어 비대위원장에 추인...권한·활동기한 의견 엇갈려

전권형 vs 관리형 비대위 ‘팽팽’...공천권 놓고 계파 갈등 우려도

자유한국당이 혁신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내정하며 비대위 체제 출범을 본격 앞두고 있지만, 향후 행보에 협로가 예상되고 있다.

비대위원장에 인적청산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지를 두고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서다.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줄 수 있는 ‘전권형’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자지 않지만, 공천권이 없는 ‘관리형’에 머물 경우 쇠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은 17일 전국위원회 열어 혁신 비대위원장에 김 명예교수를 추인한다. 이후 이달 23일까지

비대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2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하지만 비대위의 앞으로 행보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비대위 권한과 활동 기한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려서다.

당초 당 지도부는 2020년 차기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권 비대위’ 모델을 언급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에도 김 명예교수 내정을 발표하며 “거듭 밝히지만 내일 전국위에서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을 한국당이 모시는 부분은 혁신 비대위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이 2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줄 경우 비대위 체제가 1년 넘게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다. 전당대회 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다.

차기 지도부 선출 전까지 문제 진단과 당 관리의 역할로 한정하자는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바른정당 복당파에 날을 세운 친박계 의원들과 일부 중진 의원들이 주장해온 안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비대위에 힘이 실리지 못해 ‘비대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의원들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전날 한국당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관리형 비대위’와 ‘전권형 비대위’를 선호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비슷했다. 초선모임 간사 이양수 의원은 “(관리형과 전권형을 둔 표결에서) 팽팽하게 절반 정도가 나왔다”고 했다.

특히 총선 공천권을 쥐는 문제는 인적청산 방향 문제로 흘러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이 한창 남은 상황에서 혁신비대위원장에 힘이 실리기 힘들다. 인적청산도 누구를 내보낼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비대위 권한 논의와 관련해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합회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트럼프 “北과 협상 서두르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다가며 막후에서 긍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내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나에 따라 다르다. 그 김정은은 인 집에 관해서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알다시피 나는 (회담에) 가기도 전에 인집들을 돌려받았다.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

장했다.

이어 “그의 입장에서 매우 영리한 움직임이었다. 그 게 바로 신의의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알다시피 이 일은 수년간 진행돼 왔다. 나는 정말 급하지 않다. 동시에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하게 이뤄

지진 않았다. 복잡한 절차”라며 “일부 유해는 그들 그 게 유해인 줄 모른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놓고 지금 우리가 2년 전 우리를 비교해 보라”며 “2년 전엔 그들이 여기 저기서 핵실험을 했다.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고 온갖 것들을 썼다”고 강조했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